

“아·태 마스터스 적극 홍보해 달라”

김관영 도지사, 체육기자연맹 32개 회원사 기자단과 간담회서 요청... 대회는 5월 12~20일 전북 일원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장인 김관영 도지사는 26일 서울에서 한국체육기자연맹 32개 회원사 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유치 배경과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한국체육기자연맹 기자단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날 행사를 주재한 김관영 도지사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생활체육 대회로 각 국의 선수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서로 소통하고 우정을 다지며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체육기자연맹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5월 12~20일까지 9일간 태



김관영 도지사는 26일 서울에서 한국체육기자연맹 32개 회원사 기자단을 만나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성공을 위한 홍보를 요청했다. (사진=대회 조직위 제공)

권도 배드민턴, 육상 축구, 야구, 농구 등 26개 종목에 걸쳐 진행된다.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만 30세 이상 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전북체육회, 순창군체육회장 당선인 인준증 수여

민선7기 전북 14개 시·군체육회를 이끌 당선인들이 모두 정해졌다.

전라북도체육회는 26일 민선7기 순창군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손중호 당선인에게 인준증을 수여했다.

순창군체육회장 선거는 도내 시·군체육회장 선거 가운데 가장 늦은 지난 19일 치러졌다.

인준증 수여식 후에는 간담회를 열고 주요 체육 현안사업 등을 공유했다.

도 체육회 정경선 회장은 “민선7기 순창군체육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며 “전북체육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도 체육회는 지난 17일 민선7기 시군체육회 간담회를 열고 전문체



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뉴스시스

13개 구단 경쟁 리그2 새 시즌 3월 1일 '킥오프'

새 시즌부터 총 13개 구단이 경쟁하는 프로축구 리그2(2부)가 3월1일 막을 올린다.

프로축구연맹은 26일 2023시즌 리그2 정규라운드 1~39라운드 일정을 발표했다. 새롭게 합류한 천안시FC, 충북창원FC를 포함해 13개 구단이 참

가해 팀당 36경기를 치른다. 개막 라운드 6경기는 모두 3월1일에 열린다. 오후 1시30분과 4시에 3경기씩 나눠 진행된다.

정규라운드 39라운드를 마친 후에는 리그1(1부)를 향한 플레이오프에 돌입한다. /뉴스시스

“예측불가 플레이 할 것”

콜린 벨 감독, 월드컵 앞두고 자신감 표출
“월드컵 첫 상대인 콜롬비아전 승리가 중요”



여자축구대표팀 콜린 벨 감독이 26일 서울 중로구 대한축구협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휘했다.

또 2015~2016시즌엔 노르웨이 명문 아발드네스 감독을 역임했고, 2017~2019년엔 아일랜드 여자대표팀을 이끈 경험도 있다.

하지만 월드컵은 선수나 지도자로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대다.

벨 감독은 “본선에서 만날 세 팀 모두 동기부여가 가득하고 조직적인 팀이다. 또 개성도 뚜렷했다. 콜롬비아는 낯익은 축구를 하는 느낌이 있고, 모로코는 좀 더 기술적이고 조직적이다. 독일은 피지컬적으로 완성돼 있고 정비

재 독일 대표팀엔 과거 지도한 선수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뉴질랜드 원정 경기전, 12월 경남 남해 소집 훈련을 치른 여자대표팀은 오는 30일 울산에서 새해 첫 소집 훈련에 나선다. 이어 다음달 10일 잉글랜드로 출국해 4개국 친선대회인 아틀란티드컵에서 월드컵 모의고사를 치를 계획이다.

벨호는 이 대회에서 잉글랜드(2월 17일), 벨기에(2월 20일), 이탈리아(2월 23일)와 차례대로 붙는다.

그는 “지난 남해 소집 기간 잉글랜드전을 대비했다. 다가올 소집 때도 잉글랜드전 대비를 상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또 선수들이 프리시즌이라 몸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우리와 달리 상대 팀들은 모두 시즌 중 이다. 우리에게 불리한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잉글랜드는 현재 세계 최강 팀 중 하나다. 26경기 무패다.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이다. 또 유럽 스타일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체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세 팀 모두 피지컬 중심의 플레이를 한다. 독일과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만나는데, 16조에 올라도 유럽 팀을 만날 수 있다. 그걸 대비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시스

년 만에 16강 진출에 도전한다.

벨 감독은 “우리만의 플레이를 강조하면서도 그 안에서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방 압박을 하려는 팀이 실제로 경기 중에 압박이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능동적으로 플레이하고 승리를 가져오려면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에 오른 벤투호의 성공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질문엔 “벤투 감독이 외국인 지도자로서 성공한 게 동기부여나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 여자대표팀으로 일하는 게 자랑스럽다. 영국인으로 독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한국이란 훌륭한 나라에 와서 많이 도움을 받는다. 축구협회도 첫 날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지원해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란 나라와 협회, 스태프, 선수들 모두가 나에겐 동기부여가 된다. 이 팀을 지도해서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게 자랑스럽다. 월드컵에서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2019년 10월 부임한 벨 감독은 3년 넘게 여자대표팀을 지휘하고 있다. 벨 감독은 “선수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 개인적으로 선수들도 축구를 즐겼으면 한다. 가끔 선수들을 엄하게 대할 때도 있지만, 즐겁게 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한국에 와서 처음 배운 한국어가 ‘자신감’이다. 2019년엔 선수들의 자신감이 낮았다. 이제는 커졌는데, 월드컵에 가서 자신감이 극에 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국 출신의 벨 감독은 한국에 오기 전까지 독일 여자 분데스리가 FFC 프랑크푸르트 감독으로 2014년 독일컵 우승, 2015년 유럽축구연맹(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제9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월 31일(화)~2월 1일(수)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전주매일신문사
주관: 전라북도 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전라북도체육회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